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관련요인 분석

- 용산구 다문화가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Marital Life Factors for the Multi-Culture Families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Multi-Culture Family in Yongsan-Gu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계 선 자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 수 감 혜 경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
팀 장 정 미 선*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ye, Sun-Ja

Dept. of Child Care and Family Counseling, Dongeui University

Professor: Kang, Hye-kyoung

Yongsan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Education & Culture Team Manager: Jeong, Mi-Sun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 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factors affect the marital lif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immigrated females and their husbands living in Yongsan-Gu, Seoul, Korea, by open-ended questionnaire. The interviews took place on September 11, 2008, and October 11, 2008.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 informants' responses, three major factors were

* 주저자, 교신저자: 정미선 (misunj21@hanmail.net)

found to influence the successful adjustment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personal factors, famili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systems.

Among the personal factors, the self-esteem of the married couples is relatively high. However, the factor of the economic living condi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dicates some difficulty. Finally, considering the level of self-development of the female immigrants' husbands, an older husband was viewed more negatively than a younger one.

In terms of familial support,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adjustment of a foreign wife is the trust of her husband and her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s family. Accordingly, educational programs are necessary to promot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the couples' relations.

In social support systems, the female immigrants experienced neglect, as far as multicultural prejudice in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self-esteem of immigrants, we need to reach out to multicultural families.

The center for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provides opportunities to find training, upgrade education for employment, and expand their social netwo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public relations industry to recognize improvements regarding th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결혼생활 관련요인(marital life factors), 결혼이민여성과 그 배우자(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their husbands)

I. 문제 제기

1990년 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매우 드문 현상이었고,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미국 등과 같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사회는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도 보다 다양화되었다(최연실, 2008).

통계청(2009)의 '2008년 혼인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인의 국적을 지닌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36,204건이다. 이를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 4,710건과 비교해보면 7.7배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 전체 혼인건수

가 327,715건임을 감안하면 2008년 한국에서 결혼한 10쌍 가운데 1쌍은 국제결혼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의 전체혼인건수가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출범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다문화가족을 이루게 하는 국제결혼은 농촌 지역과 도시 노동자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원인으로는 왜곡된 성비레로 인해 결혼하지 못한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여성의 증가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과 함께, 한국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의 보다 나은 삶과 경제적 안정을 피하려는 외국인 여성의 욕구가 결혼을 꿈꾸는 독신의 한국남성들의 욕구와 부합되면서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종교단체가 일본과 필리핀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선교목적의 이유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고(전만길, 2005),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도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애정이 배제된 채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하지 못한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의 극복문제 외에도 빈곤,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박옥임, 2007).

통계청의 국제결혼 이혼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 2008년 11,25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11,255건으로 2007년보다 29.8%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에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293건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를 보인 반면 2008년 외국인 처와의 이혼 건수는 7,962건으로 2007년 보다 39.5%가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며 이혼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2009).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간 결혼생활 적응이 필수적이며, 현실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적응하는데 남편의 역할 및 노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장진경, 전종미, 신유경, 2008;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한건수, 2006; 채옥희, 홍달아기, 2007; 최금혜, 2005; 한국염, 2004; 양철호 등, 2003 외 다수)와 이민여성 위주의 문화적 적응(김이선 외, 2006; 유가효 외 2008)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오남, 김정신, 이정화, 2008;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2008)는 소수에 불과하고, 결혼이민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의 적응을 위해 남편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한 김오남 등(2008)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남편들이 어떤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결혼이민여성 및 그 한국인남편 즉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 관련요인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문화가족의 지원 방안 마련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족의 실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초국가적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의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도의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건수의 1.2%에 불과했으나, 2008년도

에는 36,204건으로 1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매년 결혼자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 이의 증가 추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결과, 2009).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이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으로 확대되면서,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전달체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센터로써,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정생활 안정 및 아동 양육에 대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을 실행하면서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한국사회의 독특한 배경이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적인 차원의 외국인노동인구의 유입과 함께 농촌 및 도시 빈민층 총각 및 이혼자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송출국과 유입국의 예방차원 시스템 미숙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계선자, 2009).

2008년 외국여자와 결혼한 한국남자의 혼인건수는 도시지역이 19,893건으로 농어촌지역의 7,853건보다 많음을 통해(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결과, 2009), 다문화 가족 60%는 농촌보다는 수도권에 밀집하면서 다문화가정의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도시 빈민층으로 생계가 어렵고, 가정생활 적응도 필요하지만, 가장 급한 것이 취업과 의료지원이다. 그리고 임시로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리고 남편과 연령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

도 많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연령대의 남편과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의 딸과 함께 거주 할 때 문제는 더 커진다(동아일보, 2009).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이규삼(1999)은 한국남성과 일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남편은 부정적 대화나 부정적 문제해결유형을 빈번히 나타내는 반면 일본인 여성들은 내성적이고 정서적이며 공유시간 및 가족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남편들이 낮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지 않아 이들은 부부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 방법으로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고 밝혔다(김상임, 2004).

한편,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시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부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다문화가정의 특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8).

김오남 등(2008)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 적응이 필수적 요인이라고 지적하였고, 부부가 원만히 적응하는 데는 남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남편의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선행연구를 통한 다문화가족 결혼생활 관련변인 고찰

1) 인구통계학적 변인

①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

연령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

수인데, 이는 세대관의 차이를 대변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유가효 등(2008)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연령은 20대가 44.1%로 가장 많고 30대는 33.9%, 40대 12.8%이며, 20세 이하도 6.3%에 달해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기정(2007)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이 연령별로는 25살 미만인 24.4%로 가장 많았고, 26~30세는 20.4%, 31~35세는 20.12%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혼이민여성들은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를 임신하여 양육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가 평균 11.8세로 나타나(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결과, 2009),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은 어리고 그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인 남편의 재혼율과 관련있는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중 40%는 재혼이었으며, 이중 90%가 이혼 경험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심한 연령차는 가정 내에서 남편의 권력으로 작용하여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어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홍달아기 등(2005)은 지적하고 있다.

② 다문화가족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은 연구별(유가효 등, 개인용 2008, 설동훈 등, 2006)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졸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의 경우 한국남성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남성이 고졸, 베트남 여성은 고졸, 중졸, 초졸 등인 것으로 남성이 비교적 학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평택대학

교 다문화가족센터, 2008). 한편,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과 한국인남편의 교육수준은 비슷한 수준이나, 때론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윤형숙(2004)에 의하면 통일교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 중에는 한국남자의 낮은 교육수준에 실망한 사람이 적지 않아 일본에 있는 종교단체에 항의 편지를 써 한일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알려진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설동훈 등(200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의 한국인남편의 교육수준은 전체 한국인가족의 남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다문화가족 부부의 직업종류

대체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직업은 기능/기술, 일용직 운수, 서비스 판매,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인 경우 대부분 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판매서비스 직에 종사한 경우 혹은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인 경우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가사를 돌보거나 판매서비스직 비정규직인 고용형태로 종사하다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의 국내에서의 취업은 60%수준이며 대부분 경제활동 참여이유가 생계유지(51%)와 자녀교육비(17%) 마련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직종으로는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직이 52%로 가장 많았다(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8). 한편 한국인남편들이 신체 및 정신장애자인 경우로 인한 무직이거나, 뚜렷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16.7%)임을 감안 할 때, 다문화가족의 어려움과 이에 수반되는 부부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홍달아기 등, 2005)

④ 다문화가족 부인의 취업경험 여부

보건복지부(2005) 조사 결과, 결혼이민여성

중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등의 여성은 대부분 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91.7%의 높은 취업경험이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취업은 59%로 본국에서의 취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만길(2004)에 의하면 결혼 전 직업이 있었다(42%), 결혼 후 직업이 있다(7%)로 결혼 후에는 결혼 전에 비해 직장에 다니지 않게 되고 가사에만 많이 종사하고 경제활동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경험이 있었던 결혼이민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관련 변인

① 다문화가족 부부의 배우자를 만난 방법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연구를 한 채옥희, 홍달아기(2007)에 의하면 한국인남편의 경우 종교단체(25.7%), 친구나 선배소개(24.3%),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체(28.2%)를 통해 만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친구나 선배소개(23.1%), 직접만남(20.5%)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7)에 의하면 특히 베트남과 몽골여성의 경우 55%가 결혼중매기관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여성의 경우 43.8%가 중매기관을 통하고 다음으로는 친척을 통해서(28.1%)로 파악되었다. 중매기관들의 중매비용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애정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속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이미 부부갈등의 문제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박옥임, 2007) 따라서 이러한 중매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 부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남성들이 한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을 도우려는 동기를 가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정하였고 한국남성들도 자신에게 선택받은 여성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선택하는 남성과 선택받는 여성의 입장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한다(김상임, 2004)고 지적하였다. 홍달아기(2006)는 남성들 중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혼 후 여성이 기대와 현실에서 오는 차이로 실망과 불행감으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가효·홍성희·김성숙(2008)은 국내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결혼동기와 기대수준에 대해 질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결혼동기가 '사랑' 즉 연애결혼을 한 경우, 결혼중개회사나 종교단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3) 개인적 변인

① 다문화가족 부부의 언어차이

국제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우자와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는 96.3%가 한국어(설동훈 등, 2006)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김오남(2006), 박형정(2004)은 이러한 언어장벽으로 인한 결혼이민여성의 의사소통문제가 부부갈등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게 되고, 이는 더욱 부부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이선 등(2006)에 의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출신 여성들은 언어소통에 장애가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정보를 구하기도 용이하다고 하였다. 한건수(2006)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간단한 회화책이나 포켓사전,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도하며 텔레비전이 언어습득의 중요한 통로라고 하였다.

② 다문화가족 부부의 의식주 차이

유가효 등(2008)에 의하면 한국어에 관한 의사소통 문제 다음으로 한국요리법을 지적할 만큼 식생활 갈등이 심했다. 즉 남편과 가족이 철저히 한국음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시어머니를 통해 조리법을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한건수, 2006) 또한 최금혜(2007)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요리정보를 얻어 활용하거나 한국음식을 중국식으로 변형시켜 한국의 식생활에 적응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③ 다문화가족 부부의 경제수준

가계소득 및 경제력은 결혼이민여성의 부부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높게 인지하는 부부갈등 요인이다. 설동훈 등(2006)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오남(2006)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8.9%, 150만원 이하까지 포함한다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가족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 생산직 가구 소득의 68% 수준이었고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 11점 중 3.8점으로 거의 '하층'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설동훈, 2006). 따라서 이러한 경제

적 어려움은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이 되며,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오남, 2006)

④ 다문화가족 부부의 주관적 자아존중감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더 우수하므로 갈등을 더 적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정 남편들의 자존감에 대해 연구한 추현화 등(2008)은 남성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낮으냐에 따라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남편들은 가족관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재정, 건강, 직업 순으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여성과 연령차가 적을수록,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추현화, 2008).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조유리(2000)는 남편, 부인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결혼적응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4) 가족적 변인

①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족갈등

최금혜(2005, 2007)는 시댁가족의 지지가 결혼이민자 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뒷받침해준다고 하였고, 시부모가 자신을 딸처럼 대하고 아들보다 며느리인 자신에게 상의하거나

한국인 며느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등 동서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이주여성의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편과의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를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시부모와의 갈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2007)에 의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고부간의 갈등과 또한 일상생활에서 친척들과 긴밀한 관계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②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녀양육

결혼이민여성에게 자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한국생활의 심리적 거점과 확실한 희망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주 양육자인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부족한 한국어실력이 자녀양육과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있다(김상임, 2004)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금혜(2007)에 의하면 이민여성인 모국의 자녀양육이나 교육방식과의 차이를 인식하지만 한국의 교육방식을 따르기 위해 이웃을 통해 학원정보를 얻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에서 자녀교육방식의 적응과정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들의 삶에 있어 성공의 의미를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족문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다.

한편,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한국인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이민여성 사이에서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윤형숙, 2004).

(5) 사회문화적 변인

① 다문화가족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크게 제한되는데, 교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통해 한국어와 요리, 예절 등 생활적응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개인적 친분을 쌓은 교인들의 선물이거나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또한 채옥희, 홍달아기(2006)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종교의 힘으로 한국생활을 비교적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차순(2007), 최금혜(2007)의 연구에서도 이민여성들은 종교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거나 같은 종교인의 조언과 심리적 지지로 정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국생활을 적응해 가는 데 도움을 받으며, 먼저 정착한 친구가 문화적응과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조언 및 상담을 해주거나 친목회를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지지해주는 사례도 있어 모국 친구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7)에 의하면 통일교 결혼을 통한 일본여성의 경우도 같은 교인으로부터 한국생활의 적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김오남(2006)은 모국인 친구, 민간단체 등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에게 대한 학대 예방과 감소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 보고 하였다.

②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 갈등

다문화가족 부부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파생되는 갈등문제에 부딪히게 된다(Negy & Snyder, 2000).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는 부부 각자의 세계관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Ibrahim & Schroeger, 1990).

이에 구차순(2007)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확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드라마를 보고 역할을 배우고 한국인이 되고자 노력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또 남편은 아내가 외국인이므로 한국문화에서 요구되는 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가족원들도 외국인 여성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도 개인적 기질에서 연유하기보다 풍습이 다름에서 오는 것이라 이해하며 문제를 최소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에 따른 낮은 자아존중감은 결국 한국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추현화 등, 2008).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차별감과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 관련변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살펴본 선행연구(장진경, 전종미, 신유경, 2008)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관련변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인한 결혼 당사자 간 정보교환 및 상호이해 결여 등의 결혼준비부족과 함께 결혼한 후에도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빈발 등 심각한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 한국인남편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한국인남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장진경, 전종미, 신유경, 2008)를 근거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 (2)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은 무엇인가?
- (3)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6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다문화가족 행복찾기 한국어교육)초급, 중급 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 여성과 그 남편 중 심층면접이 가능한 부부 15쌍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인 관계로 소수의 대상자를 질적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결혼이민자 부부 15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결혼이민 여성 15명 대상으로 2008년 9월 5일부터 10월 15일에 걸쳐 개별심층면접 총 3회 인터뷰를 참여자 개인별로 진행하였다.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거나 영어로 질문하거나 혹은 한국어가 능숙한 조선족 여성의 통역을 통해 각각 총 3회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남편들은 1차 면접 2008년 9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차 면접 10월 11일 오후 4시

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남편의 심층면접도 참여자 개인별로 진행되었으며 면담횟수는 최소 2회이며 1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다문화가족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차례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강의를 통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 심층면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개별심층면접이 있는 후 누락된 정보의 보충 및 확인을 위해 부부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집단면접에서는 연구자가 질문을 던지면 참여자들이 결혼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신만의 독특한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관적인 자아존중감, 배우자를 위한 자기개발정도, 의식주의 차이, 언어의 차이, 생활방식, 주관적인 경제생활수준 등이 포함되었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부관계, (사)부모관계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아내의 모국인 친구와의 관계, 한국인 친구, 이웃관계, 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1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44세, 전문대졸, 아내는 28세, 중졸이다. 남편직업은 배달운송일을 하며 2세된 아이가 있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하였고 종교는 없다.

사례 2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45세, 고졸, 아내는 27세 고졸이다. 남편

은 허리부상으로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 2세된 아이가 있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종교는 없다.

사례 3 부부는 캄보디아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52세, 중졸, 아내는 25살, 중졸이다. 남편은 신체장애자로 현재 무직이며, 부부사이의 아이는 없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사례 4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54세, 고졸, 아내는 32세, 초졸이다. 남편은 배달운수업을 하며 부부사이의 아이는 없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재혼하였으며 종교는 없다.

사례 5 부부는 일본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34세 전문대졸, 아내는 32세 전문대졸이다. 남편이 제과영업을 하고 대학에서 연애를 하여 결혼하였다. 아이는 쌍둥이 자녀를 포함하여 4명이고 종교는 통일교이다.

사례 6 부부는 우즈베키스탄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50세 전문대졸, 아내는 30세 고졸이다. 남편이 요식관련업에 종사하며 4세된 아이가 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재혼하였으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사례 7 부부는 중국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55세 대졸, 아내는 47세 고졸이다. 남편은 국제결혼정보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회사를 통해 재혼하였으며 종교는 없다.

사례 8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32세 고졸, 아내는 22세 중졸이다. 남편은 농수산물판매를 하며 자녀는 없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종교는 없다.

사례 9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40세 고졸, 아내는 22세 고졸이다. 남편은 판매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으며 1세된 아이가 있고 종교는 없다.

사례 10 부부는 우즈베키스탄이민여성의 가

죽으로 남편 36세 고졸, 아내 26세 고졸이며 남편은 전에 주류영업을 하다 현재는 무직상태이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재혼하였고 아이는 없으며 종교는 없다.

사례 11 부부는 중국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36세 고졸, 아내는 37세 고졸이며 남편은 통키타반주를 하다 무직인 상태에서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결혼하였고 아이는 2명(전남편사이 14세 여아, 현재 부부사이 1세 여아)이며 종교는 불교이다.

사례 12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45세 대졸, 아내 23세 중졸이다. 남편은 신채장애가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다. 1세된 아이가 있으며 종교는 없다.

사례 13 부부는 중국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56세 고졸, 아내 46세 중졸이다. 남편이 건설일용직에 일을 하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 무직이다.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재혼, 전처의 자녀들이 있음)을 하였고 종교는 불교이다.

사례 14 부부는 베트남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36세 고졸, 아내 25세 고졸이다. 남편이 택시기사이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고 종교는 없다.

사례 15 부부는 필리핀이민여성의 가족으로 남편 45세 고졸, 아내 30세 고졸이다. 남편이 대리운전기사이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재혼을 하였다. 2세된 아이가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이다.

이와 같이 15사례 가족의 종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남편의 연령은 40대 33%, 50대 33%, 30대 33%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아내의 연령은 20대 53%, 30대 33%, 40대 13%로 20대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연령차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령차이는 27세이고, 가장 차이가 적은 경우는 남편이

부인보다 한살 적은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결과 사례가족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는 14.5세로 통계청(2008)의 11.8세 보다 2.7세가 더 많은 연령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의 경우 농촌지역보다 이혼률이 높고 이에 따라 이혼에 의한 재혼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전문대 이상 33%, 고졸 60%, 중졸이하 7%, 아내의 경우 전문대이상 7%, 고졸 53%, 중졸이하 33%, 초졸 7%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고졸 학력이 가장 많았고 비교적 남편이 결혼이민여성보다 학력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의 국적별 교육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직업의 종류는 남편의 경우 자영직 7%, 사무직 7%, 판매영업 27%, 배달운송 및 택시기사 20%, 임시일용 아르바이트 13%, 무직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0%이고 결혼이민여성의 80%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한국인남편의 경우, 불완전 고용상태로 근로하거나 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종교에 있어서 무교 53%, 기독교 13%, 불교 13%, 카톨릭 7%, 통일교 7%, 모슬렘 7%로 나타났으며, 특정한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녀유무에 있어서 1명 47% 일곱사례, 없음 47% 일곱사례, 4명의 자녀 한사례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이민여성의 국적별로 현황은 베트남 7명 47%, 중국 3명 20%, 우즈베키스탄 2명 13%, 필리핀과 캄보디아, 일본은 각각 1명인 7%로 나타났다.

일곱째, 결혼형태별로는 초혼 7명 47%, 재

〈표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 대상자	아내 출신국	남편 연령	아내 연령	결혼 년도	교육수준 (남편/아내)	남편직업	자녀 유무 (연령)	결혼 중개여부 (재혼)	(시) 부모 동거	주관적 경제 수준	종교
1	베트남	44	28	2007	전문대/중졸	배달운송	2세	중개	0	보통	없음
2	베트남	45	27	2007	고졸/고졸	무직 (허리부상)	2세	중개	X	시모지원 (어려움)	없음
3	캄보디아	52	25	2007	중졸/중졸	무직 (주택물세)	없음	중개 (재혼)	X	어려움	기독교
4	베트남	54	32	2007	고졸/초졸	배달운송	없음	중개 (재혼)	X	보통	없음
5	일본	34	32	2005	전문대/전문대	제과영업	4명	연애	X	양호	통일교
6	우즈베키스탄	50	30	2002	전문대/고졸	요식관련업	4세	연애 (재혼)	X	보통	기독교
7	중국	55	47	2007	대졸/고졸	국제결혼정보회사 직원이나, 현재 일이 없다고 함.	없음	중개 (재혼)	X	어려움	없음
8	베트남	32	22	2006	고졸/중졸	농수산물판매	없음	중개	X	보통	없음
9	베트남	40	22	2006	고졸/고졸	판매(일용)	1세	연애	X	어려움	없음
10	우즈베키스탄	36	26	2008	고졸/고졸	무직 (전, 주류영업)	없음	중개 (재혼)	X	어려움	모슬렘
11	중국	36	37	2008	고졸/고졸	이삿집운송 (아르바이트) (전, 통키타 반주, 무직)	1명	연애 (재혼)	X	시부모 지원 (어려움)	불교
12	베트남	45	23	2008	대졸/중졸	부동산임대업	1세	중개	0	양호	없음
13	중국	56	46	2008	고졸/중졸	건설일용 (현, 일이 없음)	없음	중개 (재혼)	X	어려움	불교
14	베트남	36	25	2006	고졸/고졸	운전기사	없음	중개	0	시부모 지원 (어려움)	없음
15	필리핀	45	30	2007	고졸/고졸	대리기사 (전, 택시기사)	2세	중개 (재혼)	0	어려움	카톨릭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사례OO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 본 연구의 경제수준은 양호(매우 좋음) > 보통 > 어려움 순으로 구분함.

* 경제수준, 자아존중감은 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 및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혼 8명 53%로 재혼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비율이 11명 73%로 나타나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

혼의 증가를 보고한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15사례 다문화가족 부부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이다.

사례 1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영위하고 있다. 남편은 외향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으나 원만한 고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 2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중 이상으로 파악되고, 지방의 시어머니가 경제적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 생활해 가고 있다. 남편이 현재는 허리를 다쳐 경제력이 없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고, 시어머니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 3 부부가 같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아존중감도 중이상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조그마한 주택의 소액의 월세를 받고 있으나 무직인지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여성이 미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사례 4 부부 모두의 자아존중감이 중이상으로 나타났고, 남편이 자상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다. 현재 배달운송업을 하고 있으나 경력이 많아 현재 경제상황이 넉넉하진 않지만, 부부가 만족한 상태이다.

사례 5 부부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으로, 남편이 일본에 가서 사랑으로 연애결혼을 하였고 현재도 부부관계가 매우 원만하며, 생활만족도가 높다.

사례 6 남편이 다문화가족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부모두의 자아존중감은 중이상으로 나타나고, 경제수준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센터에서 지원한 합동결혼식을 한 후 부인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향상되었다.

사례 7 부부 모두의 자아존중감은 중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다. 일거리가 줄어들어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부인이 중국에서 데리

고 온 딸을 같이 양육하고 있다.

사례 8 부인의 자아존중감은 중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은 낮게 나타났다. 시부모가 계시는데 시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다. 경제수준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례 9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중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 친정어머니께 맡겨 기를 예정(1차 면접시)이었으나, 베트남에 가서 아이를 차마 떼놓지 못하고 다시 데려온 상태이다. 시부모는 안 계시나, 시고모와 갈등을 겪고 있다.

사례 10 남편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아존중감은 낮은 편으로 두 번째의 국제결혼으로 현 아내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돈 벌어오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라면 값만 주어 배고픔에 시달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진 부부이다. 이는 같은 집단면담자 모국인 친구에 의해 파악된 사항이며, 지금은 아내가 도망하여 쉼터로 가버린 상태이다.

사례 11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중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는 원만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게 해 준 사례이다. 남편이 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는 초혼이지만, 부인이 재혼이 경우로 부인소생 딸과 이제 막 백일이 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사례 12 남편이 지체부자유자이지만 자아존중감이 중이상이고 대졸이며, 시부모의 경제력과 함께 남편의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다. 남편의 성격이 원만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다.

사례 13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중이고, 아내가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며,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사례 14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중이고, 부부관계는 원만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

고, 시어머니 및 시누이와의 관계가 어렵다. 시어머니와 함께 봉어빵장사를 하고 있다.

사례 15 부부의 자아존중감은 중 이상이고 부부관계는 원만한 편이지만, 시부모와 남편의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데, 아내가 자기가 낳은 딸만 신경을 쓰고 전혀 소생 고등학생에게 무관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 부부의 주관적인 자아존중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나 경제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며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부부의 주관적인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중 이상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무직2명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평소 낙천적인 성향임)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남편들은 면접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부부관계가 원만하여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 모두 주관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결혼생활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열심히 할 자신도 있습니다. 주변사람들도 인정합니다.[사례1, 4, 5-남]
- 어떻게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국제결혼이라는 점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형제들도 아프고 형제도 많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못 올렸어요. 아내에게도 미안했죠. 합동결혼식을 하고 나니 아내가 너무 행복해 해서 나도 행복합니다.[사례 6-남]

- 결혼식 해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사례6-여]
- 나는 내 자신이 가치가 있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사례15-남]
-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고 싶어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사례14-여]

2) 배우자를 위한 자기개발정도

결혼이민여성의 남편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특별히 아내를 위한 자기개발이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 말, 음식,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우자를 위한 자기개발이라고 서술한다. 특히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생활을 위해 아내 나라의 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베트남 여성과 필리핀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사전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내가 한국어를 잘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아내에게 맞추기 위해 본인(남편)노력의 정도는 부부관계의 친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심층면접 결과 나타났다. 즉 친밀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아내를 위한 자기개발정도(언어습득을 위한 노력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부관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국제결혼한 다른 남편에게 권유하고 싶은, 아내를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은 아내나

라 문화를 알기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베트남나라에서 몇 개월이라도 생활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도 하구요.. 아내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고 노력하여 기준을 제공하고.. 베트남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사례1-남]

- 아내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아내의 모국음식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워 아내와 대화하려는 노력이나 아내나라의 예절을 익히기 위한 노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사례15-남]

3) 의식주의 차이

다문화가족의 의생활 차이 문제는 필리핀여성인 경우 비교적 한국의 날씨가 추운편이라고 하여 비교적 날씨에 비해 두터운 의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 한국의 날씨를 따듯한 편으로 여겨 겨울에도 별 다르게 추위를 느끼지 않는 편이었다. 주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생활의 경우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인 경우 음식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심하게 느끼며 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 음식에 대한 적응이 안되었는데요. 이곳 (건강가정지원센터) 요리교실에서 배워 집에 와서 된장국을 끓여주었어요. 입맛에 꼭 맞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루에 두끼 밖에 먹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사례1-남]

- 쌀국수 먹고 싶어요. 베트남 쌀국수 맛있어요. 한국의 시장 마트에서도 팔아요.[사례1-여]
- 한국음식 김치를 처음에 매워서 잘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반찬도 나랑 같이 만들고 집안 정리도 잘하고 그래요.[사례4-여]
- 한국음식 매워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찌개도 맛 괜찮아요.[사례4-여]
- 000가 잘해요. 반찬도 정말 신경쓰고요. [사례5-남]
-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도와줘서..동생 집에서 김치를 택배로 부쳐 옵니다. 몇번 김치도 같이 담겼어요. 시장에 가면 반찬을 중국식으로 사서 오죠.[사례7-남]
- 한국음식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 한국요리 배우는 것 좋아요.[사례7, 12-여]
- 결혼 전에 아내 모국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밥먹을 때 콜라를 먹는 것은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식생활에 관한 많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사례15-남]
- 한국음식 매워요. 필리핀 음식 안 매워요. [사례15-여]

4) 언어의 차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국어 활용능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동훈 등, 2006; 김오남, 2006). 부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경우에 한국인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한국어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예

를 들어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일상적인 의사소통 문제 극복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TV나 라디오, 이웃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한국어 과제를 내주고 저녁에 검사를 한다던지, 혹은 부정확한 발음을 수정하기 위해 센터(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던지 하여 결혼생활 적응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다문화 부부의 경우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부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되는 사례도 있었다.

-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 곤란한 적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이 되어 화가 나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 내가 베트남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해하여 화가 풀린 경우도 있었어요.[사례1-남]
- 집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배우고 센터에서 한국어 숙제도 하구 내가 저녁에 도착해서 한국어 숙제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요.[사례4-남]
- 한국어 어려워요. 몰라요.[사례4-여]
- 처음에 우즈베키스탄 말이 안 통해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서로 영어를 사용하다 말다 하고 나서 이해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쪽 말은 발음이 잘 안되어서 7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많이 서투릅니다.[사례6-남]
- 한국어 발음 어려워요. 또 아이 어린이집 숙제 같이 해주는 것 잘 몰라요.[사례6-여]
- 한국어 발음에서 o, ㄴ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한국어공부를 해야 하구요.[사례7-남]
- 병원에 가야하는데 남편이 같이 안가요. 그래서 잇몸이 아파서 혼자 치과를 갔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중국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이

상이 없는 이를 뽑아 버렸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화가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요.(통역)[사례00-여]

다문화가정 중 가정생활이 위기에 처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에 대해 남편이 구박하는 경우를 언급한 사례도 있다.

- 남편이 혼자서 떠들어요.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술먹고 나를 때리고. 그리고 계속 혼자 떠들어요. 나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통역).[사례00-여]

자녀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권의 외국인 여성과 결혼의 계기도 되었다는 한국인 남편도 있었다.

- 아내의 한국어 실력부족으로 인한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전처 소생)에게 영어공부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영어권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사례00-남]

5) 생활방식의 차이

대부분 중국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은 가부장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아 결혼생활에 가장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 아내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하고 있어, 이러한 기대로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오랜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던 영향으로 비교적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심층면접결과 나타났다.

- 아내가 한족이라서 내가 중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중국문화권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남자가 아내와 같이 주방 일을 해요. 우리 한국남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중국인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중국은 확실한 양성평등입니다.[사례6-남]

-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우리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사례6-여]
- 오랜 베트남 전쟁으로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해 온 영향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가정생활 등에서 생활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식생활면에서 베트남의 쌀은 가벼워서 한국밥의 한공기를 먹는 것이 베트남에 가서는 두공기 정도 먹어야 제대로 식사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방바닥에서 식사를 하는 좌식문화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긴 쌀농사가 발달해서 한국의 60-70년대라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사례1-남]
- 필리핀 여성은 전반적으로 생활방식이 한국의 육칠십년대 여인이라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사례15-남]
- 한국사람 바빠요. 남편이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사례15-여]

6)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생활 수준

다문화가족 부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생활수준은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어려움 -9사례가정, 중하(보통)-4사례가정, 중-2사례가정). 이 중에는 경제적 여건은 중류이나 신체적인 결함(지체장애 1급)이나,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었다 (3가정).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의 현실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남편은 어려운 가

정형편을 들먹이며 아내에게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남편이 아주 적은 생활비만 주기 때문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권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본국 가족의 경제상황에 비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으로 보고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생활력이 매우 강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차도 있고 그러나 내가 신체장애가 있어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일해서 친정에 돈을 부친다고 해요. 직장을 구해서 일하려고 한국어 교육하는데 가는 것은 다음에 간다고 그래요. 남동생도 한국에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직장에서 쉬는 여름 휴가때 같이 캄보디아에 가서 남동생을 데려와서 한국에서 일했으면 한다고 해요.[사례3-남]
- 지난번도 아르바이트로 미싱일을 했어요. 000가 손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발을 다쳐서 당분간 집에서 쉬기도 했고 간혹 일이 다시 생기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사례4-남]
-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일하는 여성으로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경제적인 생활에 서로 노력해서 잘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센터)에서 한국어를 연습하기도 하지만, 한국어공부를 하러오는 학생들끼리 함께 품앗이 그룹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기술을 일주일에 한번씩 배우게 하면 미용기술 중급정도 하시는 분에게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해서 동네의 독거노인이나 양로원 또는 더 나아가서 아이들 머리도 직접 잘라주고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집에 그냥 있는 경우 주부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우울증도 없어지고 가게에 보탬도 되니 이런 곳에서 다문화가족여성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사례5]

-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전남편 딸 아이(14)도 우리집에 있는데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일반중학교에 못보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너무 비싸고, 지금 아내가 내 아이를 출산할 날이 가까워서, 그리고 한국말이 아직 서툴고 내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제주도에도 계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사례11-남]

- 딸(16살)을 아직 중학교 못 보내요. 한국말 배워서, 한국학교 보내면 돈 많이 안들어어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사례11-여]
- 아이 낳아서 베트남 친정엄마에게 보내서 키워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도 데려올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보통 친정엄마가 손자 많이 키워줘요. 남편이 일하는데서 월급을 못받아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어요. 너무 배고팠고 슬펐어요.[사례00-여]
- 말도 안통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있으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라면 두 끼 정도의 생활비만 주어 어려워요.[사례00-여]
- 경제생활면에서 기대보다 생활하기가 편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캄보디아보다 매우 잘 살고 편리하고 돈 벌기도 나아요.[사례3-여]

2.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

1) 부부관계

배우자와의 결혼결심 이유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한국여성과의 결혼이 쉽지 않아 대안으로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근무로 인해 조선족여성과의 연애결혼을 한 경우도 있어 15명 중 3명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였다. 연애결혼을 한 경우지만,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야망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아내의 경우 경제적 동기로 결혼을 결심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 이상 잘 살겠다는 아내의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남편의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경우도 있고(1사례), 질병을 갖고 있는 남편의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결혼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도 3-4사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참여한 부부 모두 부부관계가 원만한 편으로 나타났다(13사례).

- 반찬도 내가 간혹 하고 방청소는 내가 도와줘요.[사례3-남]
- 남편 반찬 같이 해요. 시장에 같이 가요.[사례3-여]
- 나를 믿고 의지해서 나도 다른 한국남자 친구들 모임에도 데리고 가고 그래요. 한국인처럼 외모도 별 차이 없어서 같이 가는 것 괜찮아요[사례1-남].
- 남편과 같이 베트남 친구 집에 가요. 친구 만나요.[사례1-여]
- 특히 베트남 여자라도 전 지금 무리 없이 생활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정확한 의사소

통을 하지 못하지만, 손짓 발짓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합니다.[사례4-남]

- 우리는 일본에 내가 가서 연애결혼을 해서 서로를 잘 알고 결혼했어요.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합니다(자녀 4명).[사례5-남]
- 남편이 우리 아이 쌍둥이 낳아서 더 좋아해요. 위 두 아이 일본 친정엄마에게 데려가요. 아이 쌍둥이 낳으면 힘들어서, 좀 맡겨두고 다시 데려 올거예요. 남편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요.[사례5-여]
-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지금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생활비를 시댁에서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 분유값이랑 매우 신경이 쓰여요. 아이 둘은 지금 절대 무리고 내가 한국말 빨리 배워서 직장생활을 해야 해요. 돈을 벌어야 해요.[사례2-여]
- 남편이 핸드폰을 사주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혼났어요.[사례14-여]
- 남편은 착하고 잘해줘요. 지난번 베트남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베트남에 같이 갔어요. 마음이 아팠고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에서도 많이 울고 한국 와서도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어줘서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사례4-여]
- 폭력 때문에 경찰서에도 가게 되었어요. 진단서도 끊어야 하구요. 남편은 결혼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라고 해요. 무서워요.[사례00-여]

2) (시)부모관계 및 가족관계

사례가정들은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10살 이상으로 시부모가 연로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7사례나 되었다. 이외에 지방에 거주하거나 혹은 단칸방에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시부모(2사례)는 외국인 며느리가 본국으로 도망갈까 봐 매우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간혹 도망간 결혼이민여성의 얘기가 나오면 같은 나라권의 이민여성을 만나는 것을 매우 꺼리며 경계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민여성의 남편들은 아내와의 나이차이가 많아 대부분 처음에 나이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한 나이차이는 결혼생활의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혼인 당시엔 어린신부에 대한 호감요인으로 작용하나, 평균 15살 이상의 나이차이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세대차이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보다 훨씬 젊은 이민여성이 알리지 않고, 집에 늦게 오거나, 사전 얘기 없이 집에 없는 경우 젊은 이민여성을 걱정 또는 의심하여 센터에 이민여성을 찾는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 어머니, 아버지 두분 다 돌아가셨어요. 내 나이는…[사례3-남]
- 시부모님 안계세요. 돌아가셨어요.[사례7-여]
-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남편 누나 있어요. 나이 많아요. 나에게 잘해 줘요.[사례4-여]
- 어머니는 지방에 살고 계시고 연세가 많아요.[사례2-남]
- 우리 어머니가 OO를 믿지 못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나이도 있고 하는데, 어디 연락도 안하고, 친구를 만났다고도 하는데… 지난번 텔레비전에도 OO나라 여자가 도망가고, 그리고 결혼할 때 친정에 돈 부쳐준다고 약속했는데 친정에 돈을 부쳐주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여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걱정해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사례00-남]

- 고부갈등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말 난감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내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그때 미치겠더라구요. 그래서 둘 사이에 내가 정말 크게 화를 내버렸어요. 처음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중간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중간에 정확하게 하니깐 다음부터 서로의 고부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처가 적당히 알아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저도 중재를 간혹 하지만 처음에 무섭게 화낸 것이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사례 1-남]
- 베트남가정에서는 여성 권위가 한국보다 높은 것 같아요. 집안의 주도권도 남성인 아버지보다 엄마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번 월급을 어머니께 주었더니, 아내가 화를 내요. 베트남에서는 그렇지 않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생활을 하면 되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돌볼 때는 남편은 자신의 가정만 돌보는 것이라면서요. 베트남 친정오빠도 결혼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활하고,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생활한 다면서요.[사례1-남]
- 한국어 공부하러 올 때 어머니가 우리 아이 돌봐줘요. 반찬 같이 해요.[사례1-여]
- 가족과 많이 만나지는 않아요. 전세집을 구해주고 했는데, 어머니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남편과 아이만 있어요.[사례2-여]
- 내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누님이 살고 있어서 반찬을 간혹 가져다주기도 해요. 시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고, 손위 첫 번째 누님이 60세가 넘으셔서 어머니 대신으로 생각하여 제사나 명절 때 인사를 하며 잘하고 있습니다.[사례4-남]
- 남편과 가족, 친척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사

례00-여]

- 여기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누이하고 살아요. 시누이가 집에서 놀아요. 하루종일 아무 일도 안해요. 나는 시어머니하고 봉어빵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누이 나빠요. 항상 아무 일도 안하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해요. 내가 시누이 빨래도 다해줘요.[사례00-여]
- 엄마(시어머니)가 반찬 해줘요. 같이 해요.[사례12-여]

본 사례들에서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양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므로,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한편 다문화가족이 시부모와의 동거할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시부모와 동거한 경우에 한국어가 더 빠르게 향상한 경우도 있었고, 자녀의 언어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양육지원뿐 아니라, 한국요리를 익히는데도 긍정적인 지원을 받아 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자녀 양육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재혼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은 결혼연령이 20대 초반으로 임신과 분만,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해 산부인과나 보건소 등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에도 취약한 위치에 있다. 한국인 남편의 경제활동도 낮은 수준(무직 4명, 일용직 등)이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대안이 절실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지원할 가족관계 지원망도 취약한 편이다(시부모 연로, 사망, 지방거주, 단칸방으로 인한 동거의 어려움 등). 이러한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자녀 출산시 보건소나 병원에서 이들을 도울 도우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시거나, 지방의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산후를 돌봐주시기도 하지만, 병원에 아이의 예방주사를 맞히거나 하는 것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으로 남편이 결혼이민자와 함께 병원에 가는 것 등의 필요한데 이런 경우 불편하고, 비용도 비싼 점 등이 불편한 것으로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출산 및 아동양육 방문 지원서비스는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남편이 부재중일 때 결혼이민자 산모가 진통이 올까봐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곧 아이를 낳을 건데요. 구청의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OO를 때어오고, 아내가 아기 낳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절차를 잘 몰라서요. 베트남에서 친정엄마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오실수 있는지... 그리고 오더라도 아직 많이 기다려야 하고요. 아내가 임신, 출산에 대해 잘 몰라요. 다 나에게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워요. 가까이 아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사례9-남]
- 아이를 출산하여 병원에 가야하고 긴급하게 전화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일하러 가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도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데... 의사선생님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간호사는 바빠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지방에서 사시는데.
[사례8-남]

- 아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아이목욕도 시키고 우유도 먹고 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줍니다. 내가 허리를 다쳐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집에서 쉬어서 양육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사례2-남]
- 내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힘듭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전남편 소생 아이(19)를 입양해 와서 더 힘듭니다.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 일을 있지만 아내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지 않습니다.[사례7-남]
-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는데, 같이 돌봐 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오지 못했어요. 일이 힘들어 피곤했는지는 몰라도 집에 오니 잠만 자고 있었어요.[사례00-여]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은 재혼가정이 많다. 전처 자녀와의 동거시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 전처 소생의 고등학생 큰아들이 많은 양보를 합니다. 둘째아이는 지금 아내의 자녀인데 그 아이에게만 매우 헌신적이고 맹목적입니다. 큰아들과의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있고, 그 점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례00-남]

3.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1) 아내의 모국인 친구관계

아내의 모국인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외국인

아내(특히 베트남, 중국)에 대한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 사례로 가출한 베트남 여성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아내의 모국인 친구를 선별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아내의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 같은 이민자 특히 제 처와 같은 나라에서 온 베트남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것을 적극 지원하는 편입니다. 외롭고, 서로 아이 키우는 것, 베트남 소식과 한국생활에 대한 여러 사례를 공유하면서 얻는 점도 있으니까요. 저도 처와 다른 베트남 집에도 가보고 그러합니다.[사례1-남]
- 베트남 친구 만나요. 친구 집에 와요.[사례1-여]
- 베트남 사람 만나요. 베트남말 많이 해요. 스트레스 없어요. 기분 좋아져요.[사례14-여]
- 집 가까이에 중국친구 만나요. 또 여기 오면 중국사람 만날 수 있어요.[사례7-여]
- 그런데 지난번 베트남 여자가 가출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도 질이 좋은 베트남 여성과는 만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좋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것은 싫은 생각이 들어요.[사례00-남]

2) 한국인 친구, 이웃관계, 사회적 지지망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친구나 이웃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은 본국의 부모나 형제와의 교류가 없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런 경우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왔을 때 본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본국의 동료를 만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컴

퓨터 교육, 무료 결혼식지원 및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며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이러한 센터에서 지원해주시면 하는 것은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인데요. 내가 처에게 집에서 이메일 하는 법을 가르쳐주어 친구들과도 하라고 했더니 지난번 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시대가 자꾸 변해서 컴퓨터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웠으면 합니다. 아내의 취업문제도 아이가 어느만큼 자라면 아내의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도 아내의 취업은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크면 아이를 어머니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사례1-남]
- 지난번 OO구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여행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사례2-남]
- 한국사람, 우리 중국사람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기분 안 좋아요.[사례11-여]
-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이 깊어요. 내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도 서로 잘해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쉬는 날은 한국어교육하는데 가서 한국말 배우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남편이 종교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이 서로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사례3-남]
- 한국인 성당에 가다가 이제는 별로 다니지 않아요. 한국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사례15-여]
- 설 명절, 추석 명절 같은 한국의 대명절이나 아이 돌잔치나 결혼식을 할 때 친척이나 이웃이 없어 외로운 적이 많아요.[사례6, 9-남]

- 베트남 친구들과 센터에서 1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베트남 이야기, 한국생활 이야기.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것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외로워요.[사례2-여]
- 먼저 한국에 온 결혼이민여성이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어요. 시장가는 것, 가족생활문화, 한국사람의 특성과 한국예절 등에 대해서요.[사례5, 6-여]

그 밖에 도움이 되었던 사회·문화적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선생님요, 쌍둥이 아이들 백일 때 옷도 사주시고 고마웠어요.[사례5-여]
- 센터의 선생님이 아이가 아프고 생활이 어려울 때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인내하라고 해서 많이 힘이 되었어요. 아이 옷도 사서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사례9-여]
- 센터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요리교실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사례1-남, 여]
- 센터에서 중고컴퓨터를 저의 집에 제공해주어 고마웠어요.[사례1, 2, 3, 11, 13-남, 여]
-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중고컴퓨터도 마련해주어서 고마웠어요. 한국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서 고마웠고요.[사례6, 15-여]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취약함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미루고 있는 가정이 8가정이 있었다. 이는 재혼에 따른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의 5가정을 포함한다.

V. 결론 및 제언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남편들은 보편적으로 도시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생활하려는 마음으로 센터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관적인 자아존중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센터 교육을 받아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부인의 경우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들은 자아존중감과 생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이 지닌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 부부의 주관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이 아내나라의 말을 배우는 정도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측면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로 봐서 한국요리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난 것을 통해, 한국어교육은 매우 필수적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빠른 한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과 교육 참여 인원을 고려한 각 출신국별 소그룹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한국어가 비교적 능통한 결혼이민여성을 출신국별 소그룹의 강사로 대체하여 한국어 교육전문가에게 한국어에 대한 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한국어 교육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과 함께 출신국별 강사를 통한 친밀감형성이 한국어습득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이들 결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취업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용기술을 일주일에 2-3회 강의를 듣고 실습을 위해 동네의 독거노인이나 양로원 또는 더 나아가서 아이들 머리도 직접 잘라주고 하여, 취업역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를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은 사회적 지지 및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아가 결혼이민여성 각자의 자질과 개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인터넷 카페 개설이나 다문화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가족적 요인으로, 일부 이민여성의 경우, 초기 한국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에 못미침으로 인해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수반된 결혼생활 부적응, 가족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즉 외국인 아내(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심각한 경우 폭력으로 이어져 이혼 및 가족해체 위기에 있는 사례도 심층면접 결과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부모 및 가족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확대를 통해 시집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잦은 이사로 현황 파악이 안되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 진료시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 품앗이사업에 다문화가정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 이웃과 친하게 교류하는 단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웃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모국의 결혼이민여성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들의 소외감과 결혼이민여성의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으로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결성된 경우,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적응 및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조모임으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 부부를 다문화가족 교육 강사로 활용한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 부부적응, 자녀양육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지속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통합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한국어능력교육, 한국요리교실, 컴퓨터교육, 직업교육은 결혼이민여성과 남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적응으로 인해 자

녀양육도 원만하게 해결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의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신자부담 통역지원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향상이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여주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도 요구된다.

둘째,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문화권의 다양한 문화를 가족과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친밀한 부부 및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결혼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망 확산으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중매체 즉 TV에 각국 다문화가정이 함께 출연하여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재미있었던 점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남편)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사회적 지지망이 될 것이다. 이외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 배제 및 인식개선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의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건강성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이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즉 노동부, 각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하거나 그 대책(예를 들어,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양대학의 미용기술교육에 참가하여 기술을 익히고, 한달에 1, 2회 각구의 관할 경로당 등에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부부만을 조사했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더욱 많은 연구대상자를 면접조사하면, 결혼관련 요인과 결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보다 더 면밀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점들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2007). 국제결혼 가족복지 지원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131-145.
- 2)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2-79.
- 3) 계선자(2009).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문: 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과 우리사회의 대응. 한국행정학회·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아시아행정포럼 2009년 춘계 공동학회 발표논문집, 47-50.
- 4)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 6)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김오남, 김경신, 이정화(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5.
- 8)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

- 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9) 동아일보(2009). “다문화가정 자녀 2개 언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키우자”, 2009.2.25.
 - 10)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11) 박현정(2004). 광주,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민여성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12) 보건복지가족부(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13) 설동훈(2007). 결혼이민자 유입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논문.
 - 14)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5)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16) 유가효, 홍성희, 김성숙(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95-120.
 - 17)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18) 이지영(2009).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토론문: 다문화가족의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아시아행정포럼 2009년 춘계 공동학회 발표논문집, 103-108.
 - 19) 장진경, 전중미, 신유경(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200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7-65.
 - 20)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 실태조사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결과 보도자료, 2009/04/28, <http://www.nso.go.kr>.
 - 23)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보도자료, 2009/03/25, <http://www.nso.go.kr>.
 - 24)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25) 최금해(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 연구 72(1), 143-188.
 - 27) 최연실(2008). 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인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9-298.
 - 28)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8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5-298.
 - 29)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8). 다문화사회와 사회복지 교육의 역할.
 - 30)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5-243.
 -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통합예방 맞춤형 가족정책 발전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회 자료 2009-02, 9-36.
 - 32)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

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34) Ibrahim, F., & Schroeger, D.(1990). Cross-cultural couples counseling: a developmental,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Journal of Comparrative Family Studies* 11(2), 193-205.
- 35) Negy, C., & Snyder, D.(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excian 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American inter-ethnic couples: Issues of accultur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Journal of Marital Therapy* 26(3), 293-305.

- 투 고 일 : 2009년 4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4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3일